

중등 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

김대회**

<차 례>

- I. 머리말
- II. 중등 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 현황
- III. 매체 언어 교육과 관련한 교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 국어과 교사 교육에서 매체 언어 교육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정보·지식의 습득과 문화생활은 물론 일상적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매체의 사용과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어 교육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매체 텍스트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능력 신장을 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필요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2009년 11월 국어교육학회 제44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발표 원고에 대해 토론을 해 주신 염은열(청주교대) 교수님과 토론과 심사 과정에서 교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koreanedu@wku.ac.kr)

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 4).

매체 언어 교육이 국어 교육에 흡수된 형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년 동안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심의 언어 사용 기능 영역에 편성되고, 11~12학년의 선택 과목에 ‘매체 언어’라는 독립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¹⁾ 매체 언어 교육의 도입이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실로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매체 언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언어 환경의 변화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적지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엄격히 구분하자면, 언어 환경의 변화나 정책이나 제도의 마련은 매체 언어 교육이 실행되기 이전의 과제들이며, 교육과정 고시 이후에는 교육내용의 교재화, 교사 교육, 학습자의 매체 언어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유경(2009 : 91~96)에서는 매체 언어 교육의 실행 요인으로 교재, 교사, 학습자, 환경을 설정하여 각각의 변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교육목표의 설정, 교육내용의 선정, 수준별·내용별 분류와 위계화, 교재의 집필 등은 교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일련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당위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

1) 2009년 10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세부 작업으로 고교 국어 선택과목에 대한 개정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연구 단계에 있는 개정안의 골자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 언어 등 모두 6개로 나뉘어 있는 국어 관련 선택과목을 3개(가칭 국어Ⅰ~Ⅲ) 과목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각 선택 과목은 성격과 내용에 따라 재구조화되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확정안이 어떤 모습이었든 결과적으로 매체 언어 과목의 독립 교과로서의 위상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사이에 문서로만 남게 되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매체 언어’에 대한 논의는 다른 교과목에 편입·결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매체 언어’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택 과목의 성격에 맞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안이 제기되었고 그것이 매체 언어의 성격상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매체 언어’는 다른 선택 과목의 교육 내용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모아졌다(최미숙, 2009 : 451~453).

교육과정 실행을 저해할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학습을 이끌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교사 교육과 학습자의 인식 변화 여부는 인적(人的) 요소가 가진 본질적인 성격 때문에 주체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교육과정 실행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 다행히 교사 교육과 학습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비계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성공적인 교육과정 실행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 대상의 교육과 학생 대상의 학습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기 때문에 성공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역할이 구분된다. 학생 대상의 학습은 교육이 실시되는 과정이 학습자의 행동 또는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교육과정 실행의 성공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 반면에 교사 교육은 그 자체가 교재의 집필과 같이 학생의 학습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사 교육의 실시 여부와 정도는 교육과정 전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매체 언어가 국어 교과와 새로운 교육내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매체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매체 언어 교육에서 교사의 존재상은 매체 언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능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손예희, 2009 : 193).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역할은 다른 국어 교육 하위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함양은 기본적으로 교사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교사 교육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범대학 중심의 교사 양성 기관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 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중등 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 현황

교사 교육은 크게 사범대학 중심의 양성 교육(preservice)과 교사 임용 이후의 교육대학원이나 교사 연수 등의 현직 교육(inservice)으로 구분된다. 중등 국어 교사로서의 교직적 소양은 1차적으로 양성 교육을 통해 획득되며, 양성 교육을 통해 배우지 못한 새로운 이론이나 지식은 현직 교육을 통해 얻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양성 교육으로서의 전국 사범대학의 국어과 교육과정과 현직 교육으로서의 전국 시·도 교육청의 중등 국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매체 언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²⁾

1.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 8월 1일 고시 제2008-119호³⁾를 통해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각 사범대학에 하달했다. 이 고시에는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 및 성적 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교육대학원 이수 과정도 현직 교육의 한 유형이다. 교육대학원은 체제상으로는 양성 교육과 연계선상에서 상급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옳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채연(2004)에서도 “대부분의 교육대학원 교육 과정이 적전 양성 기관의 그것에 비해 한 차원 높은 위계성과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형식은 대학원이지만 실재는 학부 과정보다 못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보니 석사 학위가 학사 학위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며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곧 교육대학원이 교사 교육 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3) 구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161호(2008. 1. 8) : 교육과학기술부(2009 : 248~268)에 수록됨.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②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내에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를 반드시 21학점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으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학점(3과목) 이상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론’(2학점 이상)과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2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은 과목별 논술교육뿐만 아니라, 과목별 창의성 발달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타 교과교육 영역으로는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포함할 수 없다.

[별표 1] 주전공 및 복수 전공에 의한 자격 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 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별표 3] 중등교과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 과목

표시 과목	관련 학과 또는 학부	기본 이수 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 국어교육론 (2)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 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 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 서 1과목 이상 이수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에 따라 각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2008년을 하반기에 개편의 과정을 겪었다. 국어교육과 교육과정에서도 기본 이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는데, 매체 언어 교육도 이 시기에 일부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중등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 사범대학은 전국에 44개교가 설치되어 있다. 그 중 국어교육과 설치 대학은 32개교이다. 그 설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설치 대학(2009. 10월 현재)

국어교육과 설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미설치 사범대학
강원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공주대, 관동대, 대구대, 동국대, 목원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대, 서원대, 순천대, 신라대, 영남대, 우석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남대, 한양대, 홍익대(32)	진국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성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안동대, 중앙대, 진주국체대, 청주대 한국외대 (12)

전국 32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교육 강좌는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 이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공 선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각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매체 언어 교육 강좌 개설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전국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매체 언어 교육’ 관련 강좌 개설 현황⁴⁾

대학명	강좌 성격	강좌명	학년	학점
강원대	전공 선택	매체 및 현대국어문화자료강독	4	3
경남대	없음			
경북대	전공 선택	매체국어교육론	3	3
경상대	없음			
고려대	없음			
공주대 ⁵⁾	없음			
관동대	없음			

4) 이 표는 손예희(2009 : 198) 자료를 기초로 누락된 대학을 추가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자료는 각 대학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5) 손예희(2009 : 198)에서는 공주대의 ‘디지털 민속 문학의 이해’ 과목을 매체 언어 교육

대학명	강좌 성격	강좌명	학년	학점
대구대	없음			
동국대	전문교육과정 ⁶⁾	매체언어교육론	3, 4	3
목원대	없음			
부산대	전공 선택	영상매체교육론	4	3
상명대	없음			
서울대	전공 선택	매체언어교육론	3	3
서원대	전공 선택	매체언어교육론	3	3
순천대	없음			
신라대	전공 선택	매체언어교육론	2	3
영남대	전공 선택	매체와 국어교육	2	2
우석대	전공 선택	매체언어교육론	4	3
원광대	전공 선택	매체언어교육론	2	3
이화여대	전공 선택	매체언어교육론	4	3
인하대	전공 선택	매체환경과 국어교육	3	3
		문학과 매체교육	2	3
전남대	전공 선택	국어교육과 멀티미디어	1	3
전북대	전공 선택	국어교육과 멀티미디어	3	3
전주대	전공 선택	멀티미디어와 국어교육	3	3
제주대	없음			
조선대	전공 선택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4	3
충남대	전공 선택	영상매체교육론	4	3
충북대	없음			
한국교원대	없음			
한남대	없음			
한양대	전공 선택	멀티미디어와 국어교육	2	3
홍익대	없음			

32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매체 언어 교육과 관련된 강좌 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19개 대학(59%)에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13개 대학

과의 유사성을 인정했지만, 해당 과목이 문학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체 언어 교육 강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 6) 동국대는 1, 2학년 과정을 기초교육과정, 3, 4학년 과정을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41%)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국어와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매체 언어 교육은 매체를 통한 교육이라기보다는 매체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과와 본질적인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어교육과 멀티미디어’ 강좌를 매체 언어 교육에 포함을 시키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국어교육과 멀티미디어’는 매체 활용 교육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데, 이 강좌들을 제외시켰을 때, 매체 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15개로 줄어든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 교육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염려할 만한 수준이다. 매체 언어 교육이 ‘화법, 독서, 작문’의 교과교육학과 ‘문법, 문학’의 교과내용학과 대등한 위상의 교육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육 영역 및 내용이 변화하는 길목에서 변화된 내용에 대한 필요성과 전문성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라고 판단된다.⁷⁾

2. 각 시도 교육청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 현황

우리나라는 교원의 현직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에 현직연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14조 2항에서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7조와 제38조 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 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적절한 사회적인 지원 체제

7) 수집한 자료는 학과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별 교육과정 개정안이 학과 홈페이지에 반영이 안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속에서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직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어 교사를 전문직이라고 규정할 때 전문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화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므로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학습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는 현직연수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원 현직연수는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나뉜다.⁸⁾ 직무연수는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이며, 자격연수는 교원이 상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연수이다. 연수 기관은 학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대표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⁹⁾ 직무 연수의 경우, 수많은 연수 기관을 통해 온라인(원격연수) 또는 오프라인(출석 연수)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반면에 자격 연수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 지향하는 교육 내용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중등 국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¹⁰⁾의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원자격연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장·교(원)감·1급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¹¹⁾을 고시하였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 연수의 시수는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942호, 2008. 7. 29) 제6조에 따른 분류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연수도 있다.

9)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10)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모든 교사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국가 수준의 연수이기 때문이다. 연수 이수 시간 또한 다른 연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서 국어 교사의 전문성과 가장 상관성이 높다.

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7호(2009. 7. 8).

180~216시간으로 정하고,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영역·교과·과목·시수·운영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각 교과별로 구체적인 표준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과목을 아울러 기본소양, 교직일반, 전문(전공) 영역별로 교과, 과목 개요, 수업 시수, 연수 방법 등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별 특성이 드러나는 전문(전공) 영역의 내용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전문(전공) 영역 내용

교과	과목	시수(H)	운영방법
교과교육론 및 교과 교육과정	• 교과별 교육론 및 최신 동향 • 교과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 수준별 교육 과정 •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학교교육과정의 변천 및 주요내용	12~16	토의토론, 실기실습, 강의
교과내용학	• 교과별 핵심영역에 대한 심화학습	28~34	토의토론, 실기실습, 강의
교수·학습 방법	• 교수·학습 이론 • 교과별 교수·학습 모형별 지도방법 • 교과별 수업 분석 기법 •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제작 • 교과별 교실수업 개선 사례 • 사이버 학습의 이론과 사례 • 프로젝트 학습의 이론과 실제 • 교과용 도서 분석 및 활용	14~22	토의토론, 실기실습, 강의
교수·학습 평가	• 평가의 이론과 실제 • 교과별 평가 및 성적관리 • 교과별 평가문항제작 및 문항분석의 실제 • 재량활동의 평가	6~10	토의토론, 실기실습, 강의
특별활동	• 특별활동(계발활동, 자치활동, 적응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운영 및 평가 사례 • 교환(교류)학습의 이론과 실제 • 현장체험학습의 이론과 실제	6~8	토의토론, 실기실습, 강의
방과 후 학교 활동	• 평생교육활동 운영 우수사례 •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 우수사례 • 수준별 보충수업 운영 우수사례	6~8	토의토론, 현장실습, 강의

교과	과목	시수(하)	운영방법
교과연구 및 교육 공학	• 교과연구의 이론과 실제 • 교육공학과 교수설계 • 학습유형별 기자재 활용법	8~10	토의토론, 실기실습, 강의
현장 교육 탐구	• 선행교사와의 대화 • 선진학교 탐방 • 범교과 학습의 운영 우수사례 • 자기주도적 학습의 운영 우수사례 • 교과관련 현장탐방 • 현장연구의 이론과 실제	18~22	실기실습, 토의토론, 현장실습, 강의
평가	• 평가	4~6	
선택 과목	연수기관 자유 선택	6~8	
영역 소계		108~144	

제시된 다양한 교과 중 매체 언어 교육과 관련한 교과를 찾다면, ‘교과교육론 및 교과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세부 과목에서 ‘교과별 교육론 및 최신 동향, 교과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수준별 교육 과정,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교교육과정의 변천 및 주요내용’ 등으로 너무나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어떤 과목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가 시·도 교육청의 재량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중등 국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내용 중 매체 언어 교육과 관련한 교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¹²⁾

12) 중등 국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인근 지역의 대학이나 다른 지역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충북은 고려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2009년 기준). 그래서 대전시 교육연수원에서는 대전과 제주 지역, 고려대학교는 경기와 충북 지역 교사 연수를 함께 진행했다. 대부분 2009년 여름에 연수가 실시되었으나, 연간 연수 계획에 따라 2009년 겨울에 실시하는 지역은 2008년 연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 4〉 각 시도 중등 국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중 매체 언어 교육 과목 개설 현황

지 역		과목명	시 수
서울		매체 언어 교육론	2
		매체 언어 수업의 실제	2
인천		매체 언어의 특성과 이해	3
대전		없음	
대구		없음	
광주		매체언어	10
부산		없음	
울산		매체를 활용한 국어과 수업의 실제	3
제주		없음	
경기	서울대	국어과 매체언어 교육론	4
		국어과 ICT 자료 활용법 실습	4
		매체를 활용한 국어과 교수·학습 설계	4
	고려대	매체 언어 교육론	
강원		매체 환경 변화와 국어교육	3
		매체 활용 수업 기법과 사례	3
		신문 활용 수업의 특징	2
		신문 활용 수업의 방법과 사례	2
충북		매체 언어 교육론	
충남		매체 활용 및 활동 중심 국어교육	4
전북		NIE 활용 수업	3
		교지, 신문 편집의 이론과 실제	3
전남		매체 활용 국어교육	3
경북		매체 언어와 국어교육	3
경남		매체 활용 및 활동 중심 국어교육	4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중등 국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프로그램 중 매체 언어 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된 지역은 12개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4곳으로 나타났다. 지정된 교과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매체에 대한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매체를 통한 교육, 즉 매체 활용 교육의 형태이다. 서울, 광주, 경기, 경북 지역은 매체에 대한 교육의 형태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외의 지역은 매체를 국어 수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수업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필요한 내용은 국어 교사가 필요로 하는 내용과 연수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국어교육 전문가들이 거시적 차원에서 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길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충우, 2004 : 170~171).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는 교사는 양성 과정을 통해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등 국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다른 어떤 교과목보다 우선적이고 심도 있는 연수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연수의 실패를 들여다보았을 때, 매체 언어 교육이 아예 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매체를 언어활동을 위한 활용 도구로만 간주되는, 과거지향적 태도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국어 교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연수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일 것인데,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II. 매체 언어 교육과 관련한 교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현대 사회 발전에 따른 소통 개념의 변화는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에서 매체 교육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언어와 문화, 리터러시(literacy)와 소통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매체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은 현실적으로는 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매체에 관한 지식과 소양, 의사소통능력을 재고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게 제기한다. 이는 교사 교육과 연수를 통한 재교육에 대한 함의를 수반하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윤여탁 외, 2008 : 2). 매체 언어 교육의 도입과 함께 학교 현장에 주어진 큰 과제인 교사 교육과 연수는 개별적이거나 선택적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필수 과정이다.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사범대학 중심의 양성 교육과 시도 교육청 중심의 현직 교육에 여실히 드러난다. 사범대학 중심의 양성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자격 연수를 통해 살펴본 매체 언어 교육 관련 교사 교육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육과정 기준안

매체 언어 교사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정 기준안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교육과정 기준안에 대한 문제점은 양성교육과 현직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성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 제2008-119호 제3조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을 중심으로, 현직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7호 교(원)장·교(원)감·1급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제2008-119호)를 살펴보면, ‘(1) 국어교육론 (2)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 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 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을 제시하고 (1)~(5)의 각 항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과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교육학 영역에서 제시된 세부 과목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다. 문법 교육 영역에서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로, 문학 교육 영역에서 현대와 고전, 그리고 작품의 장르별로 과목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의사소통교육론에서는 의사소통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아닌 ‘표현과 이해’라는 의사소통의 방향성에 따른 구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이해교육론이나 표현교육론이라는 교과목의 성격까지 모호하게 만들었고, 매체언어교육론이 설 자리까지 잃게 만들었다.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서는 교과교육학으로 구분된 의사소통교육론의 세부 교과목으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언어 사용 기능에 초점을 둔 과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표현교육론, 이해교육

론이 아닌 화법교육론, 독서교육론, 작문교육론, 매체언어교육론으로 세부 과목을 정하여 제시하는 것¹³⁾이 교육 내용의 성격과 연구의 동향과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1급 정교사의 자격 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7호는 표준교육과정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격 연수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교육과정을 발표한 것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지만, 자격 연수의 중요도에 비해 고시된 교육과정은 표준교육과정이라 부르기엔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 표준교육과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서부터 교육 내용과 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까지를 제공해 주는 안내서의 성격을 지내고 있는데, 고시된 자격 연수 표준 교육과정은 성격도 목표도 평가에 대한 지침도 없이 교육 내용만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교육 내용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중등 교사의 전문성과 직결된 연수 과정이라면 모든 교과목을 아울러 교육 내용의 범주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 교과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공 영역에 제시한 과목은 기본소양 영역이나 교직일반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접근도 각 시도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권장하고 실행하게 하는 것이 교육 내용의 전달이나 교육 현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가 수준의 표준교육과정을 현재와 같이 개략적으로만 설계하여 고시했다면, 각 시도 교육청의 세부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에서 검토하여 수정·보완을 독려할 체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된

13) 이러한 논의는 문법 영역이나 문학 영역에 대한 교육이 매체 언어 교육과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매체 언어 교육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화법, 독서, 작문과 나란히 놓이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자연스럽다는 의견이다.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시대에 뒤처지거나 별다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 교육청 자격 연수 교육과정에 대해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자격 연수에 대한 틀을 잡는 작업은 교원 자격 연수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2.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둘째는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매체 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유가 교사 교육 현장 전반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1990년대 신문 활용 교육, 2000년도의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이 도입과 동시에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확대 실시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시선은 다소 냉담하기까지 하다. 많은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매체와 관련된 강의가 전혀 개설이 되지 않고 있거나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과거에 중시하던 ICT 활용 교육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직교육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신문 활용 교육이나 매체 활용 교육 등의 직업적인 과목을 고수하고 있고, 그나마도 실시하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

매체 언어 교육은 지적 활동이자 사회적 태도의 표명이며, 사람들은 매체 언어를 접하면서 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며 사회화된다. 교육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사회화라고 본 것이 정당하다면 변화하는 매체 언어의 환경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를 지니도록 교육하는 것은 교육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책무이고, 그러한 태도가 언어생활의 중핵이라는 점에서 이를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국어교육의 책무가 된다(김대행, 2004 : 6~7). 이러한 교육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체 언어 교육을 국어교육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여 당연히 교육하여야 할 내용으로 제시하였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움직임은 그러한 노력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양성 교육이나 현직 교육을 통해 매체 언어 교육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며, 소통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구체적 교육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꾸준히 성과들을 도출하고 있고, 일부 교사 단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연수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체 언어 교육과 관련한 교사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는 정부가 아니라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깨미동)나 매체 비평 우리 스스로(매비우스), 한국언론재단 언론교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미디어워치¹⁴⁾과 같은 순수한 교사 모임이나 민간단체들이 주를 이룬다. 매체 언어 교육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이들 단체들의 활동은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전국민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¹⁵⁾

매체 언어 교육 둘러싼 전국의 모든 사범대학 교육과정과 국가 수준의 교사 연수는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현재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개선한다면, 단기적으로 국어 수업 교실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체 언어 수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성인과 청소년, 교사와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습자 간의 차이와 갈등을 줄이고 문화 내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윤여탁 외, 2008 : 7) 매체 언어 교육 본연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14)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 - <http://medianaramal.njoyschool.net>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 <http://cafe.daum.net/cleanmedia>

매체 비평 우리 스스로 - <http://www.mabius.or.kr>

한국언론재단 언론교육원 - <http://www.journalismschool.kr>

경실련 미디어워치 - <http://www.ccej.or.kr/media/>

15) 매체 언어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84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느꼈던 어려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측의 인식 부족(16.7%), 학생/학부모의 인식 부족(21.4%)이 38.1%나 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김양은, 2006 : 109). 매체 언어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없는 교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교사의 인식 부족까지 감안한다면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쉽지만은 않은 문제임에 틀림없다.

3.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의 선정

매체 언어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이 아직 선정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국어 수업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매체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각각의 매체에 대해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에 문제와 직결된다. 즉, 매체 언어 교육의 질과 방향을 일차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은 이를 직접 지도하고 이끄는 교사들이다(문혜성, 2006 : 23). 교사들에게 매체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교사들이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그 요구를 분석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양은(2006 : 109~111)에서는 매체 언어를 3년 정도 교육해 온 중등학교 사 60명¹⁶⁾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매체 언어 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교육 내용

교육 내용	N	평균
매체 언어 교육의 교수 방법론	60	4.53
매체 언어 교육의 필요성 및 이론	60	3.80
매체의 제작(산업) 환경에 대한 지식	60	3.98
매체별 고유의 텍스트 구성 및 해독 방식	60	4.27
개별 매체의 실제 제작 기술	60	4.08
매체 언어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사례	60	4.50

조사 결과, 매체 언어 교육의 교수 방법론과 구체적인 교육 사례 등 교육 방법적 측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항목으로는 매체 언어의 수용과 생산에 관련된 매체별 고유의 텍스트 구성 및 해

16) 김양은(2006)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본 연구가 중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사 24명의 응답은 통계는 제외하고, 중등교사 60명의 응답만을 집계하였다.

독 방식, 그리고 개별 매체의 실제 제작 기술에 대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요구들이 매체 언어 교육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향후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 언어 교육의 내용은 학생을 위한 그것보다 질적·양적인 면에서 상위 수준을 담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리로 볼 때,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 (1) 매체의 수용과 생산 과정과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이다. 변화된 매체 언어 환경과 이에 따른 일상적 의사소통의 변화를 고려할 때, 매체 언어 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미작용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주고, 다양한 매체 언어를 통해 의미를 수용·해석·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최미숙 외, 2008 : 359).
- (2) 매체에 대한 지식 교육이다. 학생들이 접하는 매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어떤 목적으로 미디어를 접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하고, 매체가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매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정보를 찾고, 습득하고,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매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 (3) 매체를 통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교육이다.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현상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대변하며 이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문화의 향유자로서 인지하고 학습해야 할 내용이다. 즉,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 문화가 가진 특징과 다양성,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이 교육 내용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 (4) 매체를 통한 수용과 생산 과정에 대한 교육이다. 매체 환경은 텍스트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로서의 고정적 역할을 탈피할 것을 주문

한다. 디지털 시대의 수용자는 생산자에 의해 선조적으로 제시된 텍스트를 단순히 수용하거나 비판적으로 읽기라는 전통적인 텍스트 읽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텍스트의 구성이나 생산에 참여하면서 텍스트를 읽게 된다(윤여탁 외, 2008 : 157). 독자이면서 작가로서,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의 다중 역할이 부여된 만큼 매체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과정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과정을 성실히 수행해 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5) 매체에 대한 태도이다. 학습의 대상으로 매체를 수용하는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의 정의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측면의 발달까지도 말하고 있다. 매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는 학습 내용으로 제공된 또는 선택한 매체를 수용하는 자세와 함께 그것이 과연 학습 자료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며 무엇을 비판하고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발달까지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김대희, 2007 : 243).

이러한 교육 내용들은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 의해 기술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교사 교육을 위해서는 그 폭을 조금 좁힐 필요가 있다. 우선은 학교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수록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교육 내용은 최미숙 외(2008 : 382~387)에 정리되어 있다. 매체 언어 교육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교사 교육은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4. 강사 수급, 교재, 연수 기회 확보 등의 현실적인 과제

매체 언어 교사 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다. 매체 언어 교사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위에서 논의한 교육과정 기준안 보완,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수 교육 내용의 선정 이외에도 전문 강사의 수급, 현직 연수의 개설 및 확대, 실제적 교수-학습 방법을 담은 교재의 집필 및 보급 등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다.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의 수급 문제는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범대학에서도 겪는 문제일거라 예상된다. 교육과정에 매체 언어 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강의를 전담할 강사를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전문 강사 수급의 어려움은 다음의 예화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연구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느 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담당자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연구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중등 국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프로그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때, 담당 연구사가 매체언어교육 과목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추어 올해(2009년) 처음 도입한 연수 과목인데 성과가 좋지 못했다고 토로하였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강사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중학교 선생님을 한 분을 어렵사리 강사로 모셨는데, 강사로 초빙된 선생님이 매체언어교육과 관련하여 기존에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배경지식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매체언어교육 개론서에 제시된 내용만을 기계적으로 전달만 하는 강의가 되었고, 강의 이후 평가에서 모든 연수 과목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양성 기관인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매체언어교육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향후 배출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수 있지만, 이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관심이나 요

구가 아니면 담보 상태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연수 기회마저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결과는 낳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은 전문 강사의 발굴과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기회의 확대에 있다. 국가 차원에서 기존에 교사 모임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매체 언어 교육에 경험이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매체 언어 교사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발굴하여 교사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되면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무 연수를 실시하듯이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해서도 의무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매체 언어 교육에 있어서 교수 방법론이나 구체적인 실천 사례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은 교사 교육을 위한 교재도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이론을 간과할 수 없지만, 초점은 교수-학습의 실제에 두어야 한다. 중등 국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 매체 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일부 시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연수 자료를 보내주어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교재가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 대상자가 이전에 매체 언어 교육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세대이고 매체 언어 교육에 할당된 시간이 대부분 2~3시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리라 예상하지만, 연수 시간을 늘려서라도 실제적인 교수-학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실시될 연수에 있어서 개선을 기대해본다.

IV. 맺음말

매체 언어 교육은 사회의 의사소통 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학문이며 이론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지식의 습득은 사회화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의 중심에는 학교 교육이 있다. 학교 교육을 이끄는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교사의 역량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인이다. 즉, 매체 언어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은 교육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교수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문혜성, 2006 : 23). 가르치는 사람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며,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구조화되어 있어야 한다. 매체 언어 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습득하는 과정은 양성 교육과 현직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 전국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본 양성 교육 체제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중등 국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교육과정을 통해 들여다본 현직 교육 체제는 매체 언어 교육의 실현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적지 않은 수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와 시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매체 언어 교육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 언어 교사 교육의 이러한 실태를 야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양성 교육과 현직 교육에 있어서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기준안의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교사, 학습자, 학부모, 교육관계자, 연구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체계적인 매체 언어 교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넷째, 전문 강사의 발굴과 수급, 현직 연수의 개설 및 확대, 실제적 교수-학습 방법을 담은 교재의 집필 및 보급 등 현실적인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매체 언어 교육 역시 가르치는 교사의 매체 언어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체 언어 영역에 대한 인식, 목표, 성격,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등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매체 언어 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법 및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들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0. 2. 28. 투고되었으며, 2010. 3. 12. 심사가 시작되어 2010.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942호. 2008. 7. 29).
- 교육과학기술부(2009a),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 제2008-119 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b), 교(원)장·교(원)감·1급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고시 제2009-27호. 2009. 7. 8).
- 김대행(2007), 매체 환경의 변화와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 김대회(2007), 국어 교육에서의 미디어 교육 수용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선남(2006), 「미디어 교육 교사 양성과 대학 커리큘럼」, 『미디어 교육과 교수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양은(2006), 「미디어 교육 교사의 인식 및 교육 실태 조사」, 『미디어 교육과 교수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정자(2007),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 언어 교육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 문혜성(2006), 「미디어 교수법과 미디어 활용 교육 교수 설계」, 『미디어 교육과 교수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인기(2003), 「미디어 현상의 교육적 수용과 교육과정론적 의의」, 2003년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세계의 미디어 교육과 우리의 과제, 한국언론학회.
- 서유정(2009), 매체언어교육의 실행 방안 연구, 국어교육 제128집, 한국어교육학회.
- 손예희(2009), 학습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매체 언어 교사의 존재상, 새국어교육 제82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윤여탁 외(200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채연(2004),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교육과정 편성 현황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국어교육학연구 제19집, 국어교육학회.
- 이충우(2004), 중등 학교 국어 교사 연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19집, 국어교육학회.
- 임칠성(2004), 사대 국어교육과 교육과정, 국어교육학연구 제19집, 국어교육학회.
- 최미숙 외(2008),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최미숙(2009), 매체 언어 영역의 구조와 내용, 한국어교육학회 제268회 학술대회 발표문, 한국어교육학회.

H. Moser, *Einführung in die Medienpädagogik-Aufwachsen im Medienzeitalter*, 이정춘 역
(1999), 『미디어교육론』, 집문당.

J. Bowker, ed.(1991), *Secondary Media Education ; A Curriculum Statement*, London : British
Film Institute.

<http://medianaramal.njoyschool.net>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

<http://cafe.daum.net/cleanmedia>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http://www.mabius.or.kr> 매체 비평 우리 스스로

<http://www.journalismschool.kr> 한국언론재단 언론교육원

<http://www.ccej.or.kr/medi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디어워치

<초록>

중등 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

김대희

이 연구는 중등 국어과 교사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체 언어 교육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전국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양성 교육 체제나 각 시도 교육청의 현직 교육 체제는 매체 언어 교육의 실현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적지 않은 수의 국어교육과와 시도 교육청 프로그램 중 매체 언어 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 언어 교사 교육의 이러한 실태를 야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양성 교육과 현직 교육에 있어서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기준안의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교사, 학습자, 학부모, 교육관계자, 연구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체계적인 매체 언어 교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넷째, 전문 강사의 발굴과 수급, 현직 연수의 개설 및 확대, 실제적 교수-학습 방법을 담은 교재의 집필 및 보급 등 현실적인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핵심어】 매체 언어 교육, 미디어 교육, 매체 언어 교사 교육, 사범대 국어과 교육과정, 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양성 교육, 현직 교육

<Abstract>

**Media Literacy Education in the Training Program
for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Kim, Dae-h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media literacy education in the training program for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to point out several problems of the program and to suggest solutions for the problems.

Examining the curriculum of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program of education training institutes, this study explores that there is concern about carrying out media literacy education. Because there is no course about media education in some curricula and programs and there are some incongruent cases nationally and sociall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solutions about those problems in media literacy education for teachers. Firstly, the standard for designing curriculum is needed to compensate the defeats in preservice and inservice. Secondly, teachers, students, parents, educational specialist, and scholars need to change the way they regard those with media literacy education. Thirdly, the essential contents should be selected for systemic media literacy education for teachers. Fourthly, the practical tasks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for teachers such as education and supply of instructors,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inservice programs, and writing and supply authentic textbooks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media literacy education, media literacy, media education, media literacy education for teachers, Korean language curriculum, preservice, inservice

【토론문】

“중등 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토론문

염은열(청주교육대학교)

이 논문은 사범대학 교육과정과 정교사 자격 연수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교육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교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가 선택 과목으로 정해지는 일대 ‘사건’이 있었고, 또 적용되기도 전에 개정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등 교사 교육과 연결 지어 매체 언어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이 논문은, 다른 기획 주제들과 함께, 매우 시의적절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의 토론을 맡겨 된 점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토론 자임을 내세워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더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은 크게 현황을 살피는 부분과 그에 대한 발표자 나름의 제언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등 교사 양성 기관 중 국어 교육과가 설치된 32개교를 대상으로 하여, 매체 언어 교육 관련 강좌의 개설 여부와 강좌명, 강의 시수 등을 소개한 후, 같은 방식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 관련 강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교육 과정 안에 강좌조차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 언어교육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사범대학 교육과정 기준안이나 연수 표준교육과정 등이 보완되어야 하고, 매

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하며, 교사 교육을 위한 내용 선정 논의가 있어야 하고, 강사 수급 등의 현실적인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하였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전국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와 각 시도별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의 매체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의 제안은 대부분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 별다른 이견을 제시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생각이 다른 점과 더 듣고 싶은 내용에 대해 질의할까 합니다.

1. 각 사범대학이나 연수 프로그램에서 매체 언어 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했는지의 여부나 그 강좌가 필수 과목인지 선택 과목인지, 수업 시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도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양적 지표를 통해 매체 언어 교육의 현황을, 과연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문이 생깁니다.

1-1) 매체 언어 교육의 현황은, 과목의 개설 여부를 넘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까지 살폈을 때 제대로 파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혹 발표자께서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매체언어교육론’에 대해 소개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1-2) 저는 단독 강좌 개설 여부와는 별도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안에서 얼마든지 매체 언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또 실시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고전문학교육론을 강의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적인 매체 언어관에 대해 성찰하고 그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교육적 인식론의 차원에서 ‘매체’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오늘날 드라마로, 영화로, 음반으로, 테마 파크로 재창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강좌 개설에 초점을 맞춰 매체 언어 교육의 현황을 살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매체 언어 교육론’이라는 강좌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혹은 현재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1-2)에서 제기

한 궁금증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2. ‘국어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구현자이자 실행가가 국어교사라는 점에서 국어 교사 교육을 실시할 때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을 교사 교육 과정에서도 똑같이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발표자가 교사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혹 발표자가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사교육 과정을 일대일 대응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가 중시되고 있다는 점, 특히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교사 양성 기관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과부에서 제시한 사범대학 교육과정 기준안이나 연수 관련 규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도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1) 이런 논리라면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매체 언어 과목이 빠질 경우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이 빠져야 하는 것 인지요? 이러한 논리 외에 매체 언어 교육이 필요한 까닭이나 근거가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2) 이와 관련하여 예비 교사 교육과 현직 교사 교육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비 교사 교육에서는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철학과 안목, 실천적 지식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연수 등 현직 교사 교육에서는 달라진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3. 저는 국어교육은 본질적으로 매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체 교육하면 최근의 여러 복합 매체나 대중 매체를 떠올리지만 이른바 올드 미디어인 말과 글에 대한 성찰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또한 이러한 인식에서 매체 언어를 중시하였고, 미래형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매체 언어 과목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매체 환경 변화를 고려한다는 것이 단지 최근 부상한 매체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차원을 넘어서, 말과 글이라는 매체에 대한 교육 관점이나 내용 또한 조정해야 하는, 국어교육 생태계 전반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발표자는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이론을 간과할 수 없지만, 초점은 교수 학습의 실제에 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이론이 무엇인지, 교수 학습의 실제란 무엇인지도 궁금하지만, 이러한 제언을 하게 된 발표자의 매체 언어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이 더욱 궁금합니다.

끝으로, 공부할 기회를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질문이 논문을 보완하는 데, 그리고 교사 교육 과정에서 매체 언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